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 급물살 탄다

개발업체측, 광주시 요구조건 수용...이번주 계획안 제출키로
주요시설물 원형보존...아파트 4000세대 제시 놓고 진통 예고

광주 구도심내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전방(옛 전남방직)·일신방직 공장부지 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일제 수탈의 아픔과 산업화 시기 여공들의 애환이 서린 근대 산업문화 유산이 포함되어 있는 해당 부지는 그동안 공장가동 등으로 개발을 하지 못해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꼽혀왔던 곳이다. 다만 광주시와 개발업체간 아파트 신축 세대수를 놓고 치열한 살바싸움이 예고되면서, 실제 개발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7일 광주시와 전방·일신방직,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방과 일신방직측은 부동산 개발업체와 함께 지난달 2일 광주시에서 보낸 '협상조건 공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용하기로 하고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광주시에 협상조건 수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업체측은 이번 사업에서 가장 민감한 아파트 개발 규모에 대해서 4000세대 수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방과 일신방직측은 광주시의 협상조건인 공장부지 내 해방 이전 주요 시설물 원형 보존, 산·구도

심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적 중심 상업지 조성(대형유통센터, 특급호텔 등),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이익 사회적 공유·합리적 배분 등을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전방·일신측이 협상조건 수용 서류를 접수하면 해당 공장부지를 공식적인 협상대상지(역)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전방·일신측은 1년 내에 협상조건을 반영한 세부 개발계획(안)을 광주시에 제출하고, 본 협상 진행 절차를 밟게 된다. 본 협상은 감정평가부터 협상조정협의회,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 이행 등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특히 아파트 개발 규모를 놓고 시와 개발업체간 격차가 큰 점은 난제 중

난제로 꼽힌다. 개발업체측은 그동안 광주시에 제출한 '개발계획 검토 신청서' 등을 통해 아파트 개발 규모를 최소 4300세대로 밝힌 반면 시는 아파트 등 주거 위주 개발 대신 상업·업무·사회·문화시설의 융복합 개발을 협상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개발업체측 한 관계자는 "각 개발 부지마다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단순하게 계산하면 상업용지는 1만㎡당 아파트 300세대 정도를 신축할 수 있는데 30만㎡ 이르는 해당 부지는 산술적으로 9000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추정 가능하다"면서 "4000세대 수준이면 광주시의 개발 논리를 충족하면서, 최소한의 개발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측은 "협상조건 수용안이 아직 정식 접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해당 사업의 기본원칙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기본으로 한 중심 상업지역 조성이 원칙인 만큼 주거시설인 아파트 신축은 최소화하는 게 내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내부에선 3000세대 이상은 어렵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시 북구 임동에 있는 전방·일신방직 공장은 지난해 7월 전방(16만 1983㎡)은 3660억 1400만원에, 일신방직(14만 2148㎡)은 3189억 8600여만원에 부동산 개발 회사(MBN프라퍼티+휴먼스홀딩스)와 매각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개발 대상지는 총 29만3290㎡(8만8720평)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토론회가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광주와 대구 지역혁신협의회 관계자들이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낭독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영호남 6개 지역혁신협 "달빛철도 예타 면제해야" DJ센터 토론회서 건의문

영호남 6개 지역혁신협의회가 달빛(달빛·빛고을) 고속철도의 예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전남·전북·경남·대구·경북 지역혁신협의회 회장들은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달빛고속철도 토론회에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달빛 고속철도 예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기 착공은 영호남 지역발전뿐 아니라 대구와 광주의 2038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개최, 수도권 중심 인구·산업 구조 재편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의 선결 과제"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안전연구팀장, 김수영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원, 양철수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달빛 철도의 역할, 지역별 기대 효과 등을 발표했다.
이윤섭 광주시장은 "달빛 고속철도가 개통하면 1800만명 시장을 가진 동서 광역경제권이 구축돼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조기 착공을 위해 철도가 지나는 모든 지자체가 역할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

위드 코로나 중단 무용지물...광주·전남 연일 100명대 확진

골프장·학교·병원 등 감염 확산
위드코로나 중단에도 광주·전남에서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학교와 산부인과, 골프모임, 불류센터 등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연일 100명대 신규 확진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에서 연일 4000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 전국 확산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에선 이날 오후 2시 현재 4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화순에서 골프를 친 일행과 접촉자 10명이 이날 신규 확진돼 관련 누적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다. 특히 골프모임 지표 확진자인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지만 검사는 지난 6일에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확진자는 그동안 화순과 담양, 광주 북구 등 골프장 3곳에서 지인들과 골프모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북구 불류센터에서는 직원 1명이 발열, 기침 등 증상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접촉자 등을 검사한 결과, 5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지난 6일

1명이 확진된 관산구 한 중학교에선 630명을 전수 검사해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구 한 산부인과에선 산모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250여명을 검사했는데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날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유증상자도 8명이나 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전남에서도 이날 34명이 신규 확진됐다. 목포 5명, 순천·고흥·무안 각 4명, 여수·장흥 각 3명, 나주·구례·화순·영광 각 2명, 장성·완도 각 1명이다. 앞서 지난 6일 전남에서는 모두 58명이 신규 확

진됐다. 고흥지역 한 초등학교에서만 1학년을 중심으로 8명이 집단감염됐다. 고흥에서는 목욕탕과 사우나에서 확진자 2명이 추가됐다. 10명은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남에서는 특히 최근 2주간 12-18세 90명이 감염됐는데 이 가운데 91%인 82명이 백신 미접종자로 나타났다. 감염경로는 가족 간 감염 46.5%, 학교 내 전파 27.7% 순이었다. 증상이 있는데도 감기로 오인해 등교하거나 진단검사가 늦어져 집단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전남 방역당국은 학생 접종 완료율이 37% 수준으로 낮아 감염에 취약하다고 보고, 학생·청소년 접종 독려에 집중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UTOP
NOW NEW 봉선동 새로운 중심을 열다!
풍부한 생활인프라
봉선동 명문 우수학교
쾌적한 자연환경
지하철 2호선 백운광장역
남구청
백운광장
백운광장(예정) 초역세권
광주대표 명문학교
봉선생활 인프라
힐링 자연환경
건본주택 개관중

봉선 유탑 [메트로시티]
지하철 2호선 초역세권 앞, 봉선동의 이미 갖춰진 일등 생활권과 광주 강남 8학군 든든한 교육, 선호도 높은 중소형 최신트랜드 설계까지
봉선동 유탑 메트로시티에서 특권을 누리다!

특별공급	1순위 해당지역	1순위 기타지역	2순위	당첨자 발표
12월 16일 (목요일)	12월 17일 (금요일)	12월 20일 (월요일)	12월 21일 (화요일)	12월 27일 (일요일)

선호도 높은 중소형(27평) 아파트
65㎡A/Type 문의 **062) 385-3737**

시행사 (주)이니스 시공사 유탑건설 시행수탁사 아시아인력